

2007년 수출입 전망

- 산업자원부는 1, 3日(水) 금년도 대내외 경제여건과 주요 수출 산업별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수출은 '06년(3,260억달러) 대비 10.4% 증가한 3,600억달러, 수입은 '06년(3,093억달러) 대비 10.9% 증가한 3,430억달러, 무역수지는 '06년(167억달러)과 비슷한 수준인 170억달러로 전망되어
 - 무역규모가 7천억달러에 달하고 5년 연속 두 자릿수 수출증가와 6년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수출증가율 : ('03)19.3 → ('04)31.0 → ('05)12.0 → ('06)14.6 → ('07e)10.4
 - 무역수지 흑자(억달러) : ('02)103 → ('03)150 → ('04)294 → ('05)232 → ('06)167 → ('07e)170

- 산자부는 세계경제, 환율 등 금년도 대외여건은 작년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 세계경제는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은 견조하나 미국경기의 둔화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성장율이 다소 하락

【세계경제 및 무역 성장률 전망】

	세계경제		OECD국가		세계무역		美國		中國		인도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IMF	5.1	4.9	-	-	8.9	7.6	3.4	2.9	10.0	10.0	8.3	7.3
OECD	-	-	3.2	2.5	9.6	7.7	3.3	2.4	10.6	10.3	8.0	7.5

- 환율은 그간 원/달러 환율이 경쟁국 통화에 비해 크게 절상 되었으나 앞으로 글로벌달러 약세와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의 요인이 혼재하여 변동성이 확대
 - 최근 3년간 통화절상율(%) : (원화)22.7, (엔화)△6.5, (위안화)5.3, (유로화)10.4
 - 주요 외국투자은행들은 '07년 환율을 900원초에서 960원까지 전망
 - 국제유가는 세계수요 둔화 및 非OPEC 회원국의 증산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두바이油, \$/B,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 ('06)61.64→('07e)60내외
 - 국내경제는 소비심리 위축 및 보수적 투자 성향 등으로 GDP 성장률이 다소 하락
 - 국내 GDP 성장률 전망(韓銀, %) : ('06)5.0 → ('07e)4.4
- 금년도 주요 수출산업별 여건과 전망을 보면

 - ① 선박(22.1%), 자동차·부품(13.3%), 반도체(10.7%) 등은 10% 이상의 수출 호조세 지속
 - ② 휴대폰(2.0%), 가전(3.5%)은 BRICs 등 신흥시장 성장 및 선진국 시장 교체 수요 등으로 점진적인 수출 회복세 기대
 - ③ 반면, 석유화학(5.5%), 석유제품(△3.0%)은 국제유가 하향 안정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
 - ④ 섬유(△5.5%), 컴퓨터(△5.4%)는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감소세 지속
- 수입은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에너지수입 정체, 국내 경제성장 및 설비투자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크게 하락

- 원자재(10.9%) 수입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자본재(11.4%) 및 소비재(15.6%) 수입 증가율도 소폭 감소
- ▣ 산자부는 수출이 올해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에 매우 중요한 만큼 금년도 수출불안 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 수출이 5년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2007년 수출입전망]

1. 대내외 여건

□ 세계 및 주요국 경제

-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고성장이 지속되나 미국 경제성장 둔화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율은 지난해 보다 소폭 하락
 - (美國)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에 힘입어 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성장추세가 다소 둔화
 - (中國)경기과열을 우려한 중국정부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 등의 영향으로 10%대의 고성장 지속
 - (인도)글로벌 유동성 축소,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감소가 예상되나 인프라 투자 확대 영향으로 7%대 성장 유지

【세계경제 및 무역 성장률 전망】

	세계경제		OECD국가		세계무역		美國		中國		인도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IMF	5.1	4.9	-	-	8.9	7.6	3.4	2.9	10.0	10.0	8.3	7.3
OECD	-	-	3.2	2.5	9.6	7.7	3.3	2.4	10.6	10.3	8.0	7.5

□ 환 율

- '07년에도 美國 경상수지 적자확대, 경제회복에 따른 日本·EU 등의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기조 지속
- 원/달러 환율은 원화가 경쟁국 통화에 비해 큰 폭으로 절상되었으나
 - 앞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및 경상수지흑자 축소 가능성 등 하락/상승요인이 혼재하여 등락폭이 커질 전망
 - 최근 3년간 통화절상률(%) : 원화(22.7), 엔화(△6.5), 위안화(5.3), 유로화(10.4)
 - 주요 외국투자은행들은 원/달러 환율을 900원초에서 960원까지 전망

【주요 외국투자기관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

기관명	발표일	전망당시	'06.4/4	07.1/4	07.2/4	07.3/4
SCB	12.13	916	920	910	940	960
BNP파리바	11.17	939	960	950	940	930
메릴린치	12.18	928	915	945	953	960
ABN암로	12.11	925	920	910	900	900

□ 국제유가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원유수요 둔화, 非OPEC 회원국의 생산증대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 OPEC의 고유가정책, 이란 핵문제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이 상존해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어려울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중 세계 원유 수요 증가분(日 140만 배럴)을 非 OPEC산유국 생산증대(日 170만 배럴)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07년중 국제유가(두바이油 기준)가 배럴당 55-60달러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

【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 \$/bb) 】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05 평균	'06		'07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국제유가전문가 협의회(12,18)	Dubai	49,37	-	61,64	-	-	-	-	-	60내외
CERA(11,8)	Dubai	49,54	53,42	60,50	57,50	56,50	55,50	52,50	55,50	
	WTI	56,59	57,33	65,36	62,00	61,00	60,00	57,00	60,00	

-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국제석유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
-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 국내경제

- '07년 GDP 성장율은 소비심리 및 설비투자 둔화 등으로 '06년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韓銀 등 대부분의 기관들이 금년도 경제성장율을 '06년보다 낮은 4.0-4.4% 수준으로 전망

【 국내 경제전망(%) 】

		韓銀	KDI	LG경제研	삼성경제研	현대경제研
경제성장율	'06년	5.0	5.0	4.7	4.8	4.5
	'07년	4.4	4.3	4.0	4.3	4.2
설비투자 증가율	'06년	7.4	7.6	6.8	7.4	6.4
	'07년	6.0	7.0	4.9	5.7	4.5
민간소비 증가율	'06년	4.2	4.1	4.2	4.1	4.0
	'07년	4.0	3.8	3.6	3.7	3.5

【 종합평가 】

- ◆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 환율 등 여건은 '06년에 비해 다소 어려우며
- ◆ 국제유가 하향안정 및 국내 GDP 성장을 둔화는 수입을 위축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 주요 품목별 수출입 여건 및 전망

[수출]

- 반도체 (06년 : 23.5% → 07년 : 10.7%)
 - 아시아 신흥시장의 PC수요 지속 성장(10% 내외), Windows Vista 출시에 따른 DRAM 및 Nand Flash 수요확대로 수출 호조세 지속
 - Windows Vista : '07.1월 출시예정인 美 MS사의 차세대 운영체제로 구동을 위한 권장메모리가 1-2GB로 기존 XP(128MB)에 비해 크게 높아짐
 - 세계반도체시장 성장률 전망(WSTS, %, '06.10) : (DRAM)10.1, (Nand Flash)16.7
- 자동차 (06년 : 11.5% → 07년 : 9.4%)
 - 해외수요 증가, 국산차의 품질?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엔화 대비 과도한 원화절상, 해외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 등으로 증가율 자체는 금년에 비해 하락
 - 세계자동차 수요증가율(%) : (세계)2.6, (북미)0.1, (아·태)6.7, (중남미)2.6, (서유럽)△0.3
 - J.D Power 초기품질지수(IQS) : 현대자동차 3위
- 자동차부품 (06년 : 21.6% → 07년 : 25.5%)
 - GM 등 외국업체의 아웃소싱, 해외 현지공장 생산용 부품공급 확대 영향으로 '06년에 이은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
 - 주요 해외 현지공장 : 현대(美國 앨라배마, 중국, 인도), 기아(슬로바키아)
- 선박류 (06년 : 24.7% → 07년 : 22.1%)
 - 최근 수년간 LNG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한 수주가 활발하여 지속적인 수출 호조세
 - 연도별 수주실적(억달러) : ('04)301(15.5)→('05)284(△5.6)→('06.1-11)405(54.6)
- 일반기계 (06년 : 7.7% → 07년 : 13.1%)
 - 중동·인도 등 신흥시장의 구매력 증가(건설·공작기계 등), 일본의 설비투자 확대 및 국내생산 확대 지속 등으로 10%대 수출 증가
 - 일반기계생산지수('00=100) : ('04)119.7 → ('05)123.0 → ('06)125.0 → ('07e)132.0
- 철강제품 (06년 : 16.8% → 07년 : 9.7%)
 - 오일달러 유입에 따른 플랜트·건설 붐으로 중동, 러시아 수출은 증가하나 中國의 생산 확대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
 - 지역별 수출증가율('06, %) : (중동)82.3, (러시아)34.5, (美國)30.5, (中國)△16.6
 -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등의 신증설로 금년도 철강재 생산은 '06년 대비 3.8% 증가한 5,868만톤에 달할 전망
- 석유화학 (06년 : 15.7% → 07년 : 5.5%)
 - 中國의 생산 증가,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06년보다 수출증가율 감소
 - 中國의 주요 신증설계획(만톤) : LDPE(70), LLDPE(15), HDPE(200), PP(200) 등
 - 中國의 에틸렌 자급율 : ('04)39.6%→('05)41.9%→('10e)61.2%
 - '07년 국내 주요 신증설계획(만톤) : 에틸렌(75), SM(53), PP(30) 등
- 석유제품 (06년 : 32.9% → 07년 : △3.0%)
 -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정제 마진 축소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 석유제품 수출물량(백만B) : ('05)262.7→('06)288.7→('07e)285.5
- 휴대폰 (06년 : △9.1% → 07년 : 2.0%)
 - BRICs 등 저가신흥시장 성장, 선진국시장 Upgrade 수요증가 및 첨단 프리미엄폰 출시 등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은 다소 회복
 - 첨단 프리미엄폰 출시계획 : 삼성전자(기존 Ultra Edition을 바탕으로 뮤직폰, 블랙베리폰 출시), LG전자(초콜렛폰 및 후속 사인 시리즈 등)
- 가전 (06년 : △0.1% → 07년 : 3.5%)
 - 세계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생산 증가 지속, 중국산 저가 제품의 세계시장 공략 확대 등으로 낮은 수출 증가세
- 평판디스플레이 (06년 : 185.1% → 07년 : 47.0%)
 - 가격하락에 따른 디지털 TV 수요 확대, 가전기기의 IT화 추세에 대한 LCD패널 수요 확대로 꾸준한 증가세 지속
- 컴퓨터 (06년 : △10.1% → 07년 : △5.4%)
 - Windows Vista 출시('07.1) 등 해외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증가로 수출증가율은 지속 감소

【 품목별 수출 전망 】

(단위 : 백만불, %)

	'06년 수출(잠정)		'07년 수출(전망)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전체 수출	326,000	14.6	360,000	10.4
반 도 체	37,037	23.5	41,000	10.7
자 동 차	32,894	11.5	36,000	9.4
일반기계	23,879	7.7	27,000	13.1
석유화학	24,069	15.7	25,400	5.5
선 박 류	22,110	24.7	27,000	22.1
석유제품	20,414	32.9	19,800	△3.0
철강제품	19,513	16.8	21,400	9.7
휴 대 폰	17,164	△9.1	17,500	2.0
가 전	14,644	△0.1	15,150	3.5
평판디스플레이	13,400	185.1	19,700	47.0
섬 유 류	13,221	△5.2	12,500	△5.5
컴 퓨 터	12,689	△10.1	12,000	△5.4
자동차부품	10,281	21.6	12,900	25.5
주요품목 합계	261,315	17.5	287,350	10.0

*13대 주요품목의 수출비중 : 전체 수출의 80.2%('06년)

[수입]

- 원자재 (06년 : 22.6% → 07년 : 10.9%)
 - 국제유가 하향 안정과 도입물량 증가세의 둔화로 전체 수입의 25-30%를 차지하는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감소

【 주요 에너지 수입 전망 】

구 분	'05실적	'06실적(추정)		'07(전망)		
			증가율(%)		증가율(%)	
에너지총수입(억\$)	667.0	839.7	25.9	835.0	Δ0.6	
원 유	금액(억\$)	426.1	555.7	30.4	547.7	Δ1.4
	물량(백만B)	843.2	882.6	4.7	896.7	1.6
	단가(\$/B)	50.5	63.0	24.6	61.1	Δ3.0
석유제품	금액(억\$)	97.2	111.3	20.0	118.6	6.5
	물량(백만톤)	187.5	186.4	Δ0.6	199.5	7.0
	단가(\$/B)	49.5	59.7	20.7	59.5	Δ0.4
무연탄	금액(억\$)	4.3	4.2	Δ2.6	3.6	12.9
	물량(백만톤)	4.6	5.2	14.3	5.6	7.9
	단가(\$/B)	93.9	78.2	Δ16.7	65.0	Δ16.9
유연탄	금액(억\$)	48.0	46.4	Δ3.5	42.7	Δ8.0
	물량(백만톤)	69.3	70.1	1.1	71.1	1.4
	단가(\$/톤)	69.3	66.1	Δ4.6	60.0	Δ9.1
LNG	금액(억\$)	86.5	116.8	35.0	119.5	2.3
	물량(백만톤)	22.3	24.7	10.8	24.6	Δ0.4
	단가(\$/톤)	387.4	472.8	21.41	485.6	2.7
기타(억\$)	4.9	5.3	8.2	5.7	7.5	

*기타(우라늄 등) : 에너지총수입액 - (원유+석유제품+무연탄+유연탄+LNG)

* '06.12.22일까지 추정치를 근거로 작성

- 자본재 (06년 : 11.9% → 07년 : 11.4%)
 - 기업의 보수적 경영 등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율 정체로 자본재 수입 둔화 전망
 - 설비투자 추계추이('00 = 100) : ('06.1/4)105.6 → (2/4)109.7 → (3/4)105.3
- 소비재 (06년 : 19.5% → 07년 : 15.6%)
 -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라 소비재 수입 증가율도 다소 감소

【용도별 수입 전망】

(단위 : 백만불, %)

	'06년 수입(추정)		'07년 수입(전망)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원자재	174,464	22.6	193,500	10.9
(에너지)	83,970	25.9	83,500	△0.6
자본재	101,462	11.9	113,029	11.4
소비재	31,552	19.5	36,471	15.6
총 계	309,334	18.4	343,000	10.9

3. 수출입 전망

- 거시경제 모형과 품목별 전망 등을 종합하여 2007년 수출입전망 작업을 실시한 결과,
 - 수출 : '06년(3,260억달러, 14.6%) 대비 10.4% 증가한 3,600억달러
 - 수입 : '06년(3,093억달러, 18.4%) 대비 10.9% 증가한 3,430억달러
 - 무역수지 : '06년(167억달러)과 비슷한 170억달러 수준

【주요기관 전망】

(단위 : 백만불, %)

구 분	한국은행	KDI	삼성經研	무역연구소	Kotra
수출(억불,%)	3,555(9.0)	3,718(11.7)	3,482(8.4)	3,590(10.1)	3,620(10.9)
수입(억불,%)	3,380(9.4)	3,423(12.7)	3,386(9.7)	3,440(11.2)	-
무역수지(억불)	175	295	96	150	-

*통관기준, KDI는 국제수지 기준

- 수출은 세계경기, 환율 등 대외여건이 다소 어려우나 10% 초반대의 증가세로 5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예상
 - 선박(22.1%), 자동차·부품(13.3%), 반도체(10.7%) 등은 10% 이상의 수출 호조세 지속
 - 휴대폰(2.0%), 가전(3.5%)은 BRICs 등 신흥시장 성장 및 선진국 시장 교체 수요 등으로 점진적인 수출 회복세 기대
 - 반면, 석유화학(5.5%), 석유제품(△3.0%)은 국제유가 하향 안정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
 - 섬유(△5.5%), 컴퓨터(△5.4%)는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감소세 지속
- 수입은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에너지수입 정체, 국내 경제성장 및 설비투자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크게 하락
 - 원자재(10.9%) 수입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자본재(11.4%) 및 소비재(15.6%) 수입 증가율도 소폭 감소
- 무역수지는 수출에 비해 수입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6년 연속 100억달러 이상 흑자가 가능할 전망

불량제품 물렸거라! 클릭만 하면 정보가 주르르~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망 구축...불법·불량제품 여부 실시간 검색

‘내가 지금 구입하는 전기용품이 위험하진 않을까?’ ‘혹시 불법·불량 제품은 아닐까?’ 앞으로 이러한 걱정과 궁금증이 클릭 한번이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전기제품 등에 대한 안전 정보, 국내외에서 위해(危害)가 발생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된다.

이번 안전정보망은 다양하게 수집된 공산품·전기용품의 안전 위해정보를 평가·분석하고 제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최월영 안전관리팀장은 “이번 정보망 구축은, 그간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안전관련 기관간 제품안전 정보 공유체계 미흡 등으로 소비자의 안전정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내년 하반기 본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올해에는 안전정보관리에 필요한 웹서버 등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5개 분야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 또, 안전업무·제품안전정보·안전위해정보·안전인증·유통제품안전관리 분야 안전정보에 대한 수집·가공·분석·평가 체계를 갖추고, 관련 자료 및 정보 입력 작업에 착수했다.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신고한 불법·불량제품 내용을 시스템 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이버쇼핑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검색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울러 종합적인 제품안전 위해정보, 국내외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 정보, 안전관련 국내외 법령정보 등이 제공돼 제품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안전정보서비스 포털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안전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위한 ‘안전업무 포털시스템’도 마련되며, 제품안전에 관한 종합정보지 ‘제품안전뉴스’도 발행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또,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위해 선발된 시장감시 모니터링요원들에게 안전 위해 정보를 제공,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통을 상시 감시토록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 : 제품안전정보망 추진계획

【 제품안전망 추진계획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기반구축 - 서버 구입·설치 - 응용서버 구입·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구축완성 - 보안관리시스템 및 SSO - 미들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서버 구입·설치 • 프로그램구입·설치 - RDBMS SQL(2005) - 웹로봇 - 검색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il 및 SMS시스템 • 서비스 프로그램 구입·설치 - 서버보안 프로그램 - Mailing System - 커뮤니티 및 웹진 	
소프트웨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소프트웨어개발 • 내부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항 - 사용자관리, KMS와 연동 - 교육 및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탈시스템 구축·운영 - 국내외 정보제공 및 수집을 위한 포탈 창구 개발 - 외부기관과의 연동을 위한 미들웨어 시스템 개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시스템에서 운영 • 데이터 수집 기록 - 소보원, 관세청, 인증검사기관 - 안전인증·검사현황 - 수입통관현황 - 위해정보사례 등 • 안전관리 업무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정보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확립 • 데이터 상호교환을 위한 체계구축, 안전정보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 관세청(통관자료) - 소보원(위해정보) - 인증검사기관(인증현황) •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상시 운영 활성화 및 정보활용

중소기업 R&D, 전략적 · 수요자 중심 대개편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

중소기업 R&D자금이 3,6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과제 등에 집중투자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크게 개편된다.

1.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지원 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이현재)은 중소기업 R&D자금 3,600억원중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기술개발자금으로 '06년 2,148억원보다 27.9%가 증가한 2,747억원을 투입하여

-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과제를 확대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지원을 활성화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 전략과제 지원확대 : ('06) 696억원 → ('07) 1,055억원 (51.6%증)

- 잠재 혁신형기업 등 일반기업은 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등의 지원으로 혁신역량 수준에 맞게 차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시 지방배분을 확대('06, 47.6% → '07, 51.6%)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과제 예산의 지방배분시 재정력지수 가중치를 확대 반영(15% → 25%)

사업명	'06예산	'07예산	증감	비율	
				비율	비고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1,596	1,995	399	25.0	
● 상용화 기술개발	250	392	142	56.8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60	300	140	87.5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90	92	2	2.2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	240	260	20	8.3	
●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	62	100	38	61.3	
계 (억원)	2,148	2,747	599	27.9	

■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과제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격년지원제를 폐지하여 기술개발기업에 매년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점검하여 현장평가를 생략하는 등 기술혁신기업의 R&D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 또한,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과제를 다원화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수요기관을 확대하는 등 잠재수요 발굴을 통한 기술개발과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략과제 다원화 :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우수특허과제, 신기술평가과제 등

■ 특히,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혁신을 생산환경혁신개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기술개발범위를 공정자동화까지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일반과제를 동시에 사업공고하고 단계별로 집행하여 사업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2.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 『기술개발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기청 R&D사업의 전과정을 On-line상에서 통합관리·운영하여, 절차 간소화, 중복지원 방지,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생산직무기피해소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등 5개 기술개발사업을 통합 관리·운영

■ 과제평가후 수요자(평가대상업체)가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역방향 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배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 '07년 사업부터는 기술료를 현재의 30%에서 20%로 인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3.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관리·운영의 내실화

- 업체의 기술개발 중간시점에 실시하는 중간점검은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도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서를 정밀검토하여 기술개발이 당초 목적과 다르거나 부실한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만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 지원업체에 대한 수시 무작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비 유용, 의무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개발중단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업체의 부도·폐업 및 신용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정부출연금 유용 등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 사업홍보·인식 확산 및 교육강화

- '07년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10주년이 되는 시점임을 감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우수사례 및 성과를 적극 홍보·전파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 성공사례에 대한 기획영상물을 제작하여 KTV, YTN, MBN 등의 산업뉴스에 방영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NAVER, EMPAS 등)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확대 및 우수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연도초에 개최하는 한편,
 -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기술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운영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2.8조원 지원

- 1. 8(월)일부터 정책자금(융자) 신청 접수 -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1.2조원 투입
-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기술금융 시범 도입(1,000억원)
- 환관리우수기업 등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심사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2.8조원 규모의 『200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1. 8일(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6개) 등을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금년도 정책자금은 창업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6,000억원의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총 6개 자문에 2조 8,308억원으로 운용된다.

※ 정책자금별 자금규모 및 대출조건 : 참고 1

정책자금의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4.7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지원된다.

금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중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① 정책자금 구조를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개편하였다. 자금의 정책 목적에 따른 공급자 위주에서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 구조를 설계하여 수요자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개편 : 벤처창업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경영혁신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구조조정자금

② 사업성과 기술성에 기초한 기술금융이 시범 도입된다. 정책자금 평가가 담보나 상환능력 등 재무평가 비중이 여전히 높아, 담보력은 취약하나 기술성과 미래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소규모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금년부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총 자산 10억원 미만 기업(총 자산 10억원이상의 기업은 현행 평가체계 유지)을 대상으로, 재무평가 비중(40% → 20%)을 줄이고, 비재무평가 비중(60% → 80%)을 획기적

으로 높여, 기술성과 사업성에 의한 기술금융을 시범 도입된다. 금년도 성과를 보아 비재무평가 비중을 추가 확대해 나가는 한편, 타자금으로 확대 및 민간금융기관으로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금융이 시범 도입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체당 용자한도(5억원 → 10억원) 및 대출기간(5년 → 8년)을 확대하였다.

- ③ “선택과 집중”에 의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시설개선자금(舊 구조개선자금) 중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57%(5,044억원)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한편,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혁신형 기업 지원을 위해 개별업체에 대한 용자한도를 잔액기준으로 현행 45억원에서 40억원(지방소재중소기업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을 통해 절감된 712억원을 혁신형 기업 지원 재원으로 공급하게 된다. 경영혁신형 지정 기업에 대해서도 벤처·이노비즈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가점(2점)을 부여한다.

- ④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수출초기기업 및 환위험관리 우수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심사시 가점(각 2점)을 부여하고, 환율하락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 6월까지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5년이상 장기 수출금융 이용 기업에 대해 졸업제가 도입된다. 다만, 금년도에 졸업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보완 장치를 두었다. 수출계약에 의한 대출금 이용시 대출기간을 180이내에서 최대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생산자 보증방식 용자제도를 시범도입한다.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 기계설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창업자금(6,000억원) 중 100억원을 활용, 생산자단체(기계공제조합)가 기계설비구입을 보증지원하는 생산자 보증방식 용자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 ⑥ 정책자금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현행 예비창업자, 업력 3년 미만, 비외감기업, 외감기업 등 총 4종의 평가모형 중 비외감기업(업역 3년이상 ~ 총자산 7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규모(소기업·중기업)와 업종(중공업·경공업)으로 세분화하여 총 7종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심사 난이도에 따라 심사등급을 3단계(약식·표준·심층심사)로 분류하여 숙련도나 경력에 맞는 심사인력을 배치한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특정등급에 편중되어 변별력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현행 10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하여 시행된다.

⑦ 국내외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시범사업(舊 구조개선자금 300억원)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 총 1,000억원을 투입하여 대외 경쟁력이 저하 또는 저하가 불가피한 업종을 미래 성장성과 글로벌 성장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⑧ 정책자금도 객관적인 성과목표 설정을 통한 성과관리가 추진된다. 정책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 증가율 등 지원성과를 위주로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책자금의 계획수립부터, 집행 및 사후관리 까지 전 Process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가 부여되는 데 만일 특정자금의 지원성과가 낮은 경우에는 자금규모를 축소·폐지 또는 보완책이 마련되고, 반면 성과가 높은 경우에는 자금규모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 된다.

⑨ 정책자금 전체 평균금리를 0.3%p 인상한다. 이는 정책자금 조달금리 인상('06 : 5.2% → '07 : 5.7%)을 반영하고, '04년 이후 한국은행 콜금리 인상(5회, 1.25%p 인상) 여파로 최근 정책자금과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금리와의 격차가 1.84%p('06. 11월 현재)로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선호현상을 심화시켜 담보력이 취약한 성장초기 또는 혁신형 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 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소상공인(5.4%), 회생특례(7.9%), 재해복구(4.4%) 자금의 경우 수요자 특성 및 현행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현 금리를 유지하고 여타 자금의 금리는 0.05%p 추가 인상하여 4.75%p로 조정하였다.

(예 : 정책자금 신용등급별 금리 : ('06) 4.0%(B+) ~ 5.2%(D) → ('07) 4.35%(B+) ~ 5.55%(D)

※ '07년도 신용등급별 금리체계 : 참고 2

끝으로 기업의 윤리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평가 대상을 개인, 비외감법인, 외감법인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증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업체에 대해 대출금 이자 상환방식을 분기납에서 월납으로 전환 하여 사전적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징후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하여 정책자금의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 '07년 정책자금 개편내용 요약 】

구 분	현 행('06)	개 편('07)	비고
● 정책자금 개편	• 공급자 위주	• 수요자 중심	- 성장단계별로 지원
● 기술금융 시범 도입 -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대출조건 개선	• 재무 40%, 비재무 60% • 대출한도 5억원 • 대출기간 5년	• 자산10억원 미만 - 재무20%, 비재무 80% • 자산 10억원 이상 -현행동일 • 10억원 • 8년	- 기술사업화자금 - 시설자금 지원 강화
● 혁신형 기업 지원강화 - 업체당 지원한도 축소 - 신청자격 제한	• 시설개선사업의 55% • 수도권 45억원 • 지방소재 50억원 <신설>	• 57% • 40억원 • 45억원 • 국제·지방세 체납 증인자 신청자격 배제	- '07 시설개선사업 예산 : 8,850억원 - 사회적 책임성 강화
● 수출금융지원 개선	• 대출기간 180일내 <신설>	• 1년이내 • 수출초보기업, 환관리우수 기업 가점 부여 • 5년졸업제 도입	
● 생산자 보증방식 시범도입	<신설>	• 기계공제조합 생산자 보증서부 융자제도 도입	- 벤처창업자금 중 100억원
● 이자상환 방식 변경	• 분기납	• 월납	
● 사업전환사업 신규 추진	<신설>	• 사업규모 : 1,000억원	- 업종전환, 업종· 품목 추가
● 금리조정	• 연 44%	• 연 4.75%(↓0.35p)	- 소상공인·재해· 회생 특례자금 현행 유지

[참고 2]

【정책자금별 자금규모 및 지원조건】

자금명		'07 예산 (억원)	용자한도 시설/운영(억원)	대출기간 시설/운영(년)	기준금리 (%)
○중소벤처창업		6,000	20/5	8/5	4.75
○개발기술사업화		1,000	10/3	8/3	4.75
경영혁신	시설개선	8,850	30/5	8/3	4.75
	지식서비스	1,000	10/5	8/3	4.75
긴급 경영안정	기업간협력	2,660	40/5	10/5	4.75
	원부자재구입	2,100	5	3	4.75
	재해복구	500	10	3	4.40
구조조정	수출금융	748	10	1년이내	4.75
	회생특례	200	10	3	7.90
	사업전환	1,000	30/5	8/3	4.75
○소상공인		3,300	0.5	5	5.40
○기타(자산유동화, 무역조정)		950	-	-	-
		28,308			

[참고 3]

【'07년도 신용등급별 금리체계】

(현행)	A	B+	B	C+	C	C-	D+	D	D-	E	차등폭			
	X	4.0	4.2	4.4	4.6	4.8	5.0	5.2	X	X	1.2			
		↓		↓			↓							
(조정)	A	B+	B	CC+	CC	CC-	C+	C	C-	D+	D	D-	E	
	X	4.35	4.55	4.75	4.85	4.95	5.05	5.15	5.25	5.35	5.55	X	X	1.2
	X	미가산	0.2%	0.3%	0.4%	0.5%	0.6%	0.7%	0.8%	1.0%	1.2%			

*가산금리는 CC+ ~ C- 등급은 0.1%p, 나머지 0.2%p 적용

[참고 4]

0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및 신청 · 접수처

▣ 중소기업청

지방중기청	전화	지방중기청	전화	지방중기청	전화
서울	02)509-7018/9	경기	031)201-6800/2	충북	043)230-5300
부산·울산	051)601-5111	대전·충남	042)865-6100	전북	063)210-6400
대구·경북	053)626-2601	인천	032)818-8323	경남	055)268-2511
광주·전남	062)360-9109	강원	033)260-16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서울	02)769-6813~7	전남서부(목포)	061)287-7755	경기북부(고양)	031)920-6700
부산	051)630-7400	전남동부(순천)	061)724-1056	충북(청주)	043)230-6800
대구·경북(대구)	053)601-5300	대전·충남(대전)	042)866-0114	전북(전주)	063)213-2130
경북중서부(구미)	054)476-9314/21	충남북부(천안)	041)621-3687	경남(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포항)	054)223-2042	울산(춘천)	052)277-3283	강원	033)256-9611/3
인천	032)450-0500	경기(수원)	031)259-7900	강원영동(강릉)	033)646-9967~9
광주·전남(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시흥)	031)496-1079	제주	064)751-2055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서울	02)563-1400	강원(춘천)	033)251-1353
부산	051)816-6050~2	경남(창원)	055)212-1250
대구	053)554-5300	경북(구미)	054)474-7100
인천	032)260-1500~3	전남(순천)	061)729-0600
광주	062)950-0011	전북(전주)	063)282-1221
대전	042)864-1701~6	충남(아산)	041)541-9833
울산	052)289-2300	충북(청주)	043)236-2691
경기(수원)	031)259-7700	제주	064)758-5740

▣ 인터넷 이용안내

- 중소기업청 : 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 www.sbc.or.kr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www.icredit.or.kr
- 중소기업정책포털 : www.spi.go.kr
- 소상공인진흥원 : www.sbdc.or.kr